



## 참관기

# 13차 열대의학 세미나

■ 민 홍 기

1982년 6월 4일, 아침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 장기원기념관에서 개최된 열대의학연구소 주관 제 13차 열대의학 세미나의 프로그램에 의하면 오전 개최식에 이어 2개의 주제와 5개의 증예 및 조사보고등이 발표될 예정이고 점심 후 2개의 주제에 이어 심포지움이 진행될 것으로 짜여 있었다.

특이한 것은 과거와는 달리 외국

인의 대거 초청을 피하고 하루만의 짧은 일정으로 계획한 것이었다. 그러나 비록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한국에 있어서의 열대성 질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책에 대한 당면과제를 조용하나마 알차게 모색하려는 의욕과 노력이 역력하였다. 따라서 연자와 참석자 모두가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계분야에 종사하는 인사들과 증예들을 직접 취급했던 당사자들이었고 외국인으로서는 오



직 일본 구루메 대학의 Akusa-wa 박사 한분만이 목적으로 초청되었을 뿐이었다.

오전 9시 30분까지 등록을 마친 50여명의 연자 및 참석자들이 좌정한 가운데 조직위원장의 개회인사만으로 끝낸 개회식은 어찌면 쓸쓸하기조차한 느낌이 있었으나 우리들끼리 모여 대내적 입장에서 우리 말로 자유로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토론, 정리하면서 이에 따른 관리방책을 모색하려는 굳은 의지가 깃들여 있는가 싶어 숙연하기조차 하였다.

주제 “해외인력 진출에 따른 보건정책”을 보고한 김성구 전보건국장은 해외에 있어 취업한 한국인 근로자들이 각종 전염성 질병에 이환되었다가 귀국할 경우 국내에서의 전염병 발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감안하여 출국전 및 귀국후 정밀한 신체검사는 물론 해당국내에 만연하는 전염성 질병의 올바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나 현황 정보가 단편적이어서 올바른 분석이 어렵고 다만 오늘의 세미나에서 부상되는 문제점과 관리방안은 기회 있는대로 시행에 반영토록 보고, 건의하겠으나 신빙성 있는 자료의 수집에 전문가들의 협조를 당부함으로써 일선 행정가다운 면목을 보였다.

이어 방용호 인도네시아 주재 WHO 비루스연구소장은 “동남아에 있어서의 곤충매개성 질환과 그 관리”의 보고에서 다양하고도 아름다운 천연색 Slide를 이용하면서 역학, 생활환경, 관리사업 및 진료등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특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말라리아가 줄거리의 핵심을 이루었는데 이의 관리는 매개곤충 및 병원체의 박멸이 중요하며 매개곤충은 환경개선 및 모기장등의 사용으로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병원체 구제(驅除)는 매개곤충과 감염인체에 대한 약품의 사용에 의존되는데 1946 - 1970년의 기간을 “인간의 말라리아 정복”의 역사적 시기라고 할만큼 박멸노력의 성과를 올렸다 하나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말라리아원충의 박멸은 내성(耐性)발현으로 제한된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성공적이 못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열대지방의 유행국가에서 다 같이 겪는 사실로서 앞으로 보다 바람직한 약품의 개발, 저농도 구제제의 선택적 살포,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종적 및 횡적 연구조사와 아울러 보충동물의 관리등이 강조되어 마땅하다 하였다.

열대성 질환이 우리나라의 과거에 없었던 바 아니나 최근에 이르면서 귀환 근로자들에 의해 유입되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예는 애급주혈흡충증과 열대열말라리아 및 피부리슈

마니아증 등인데 민득영 (연세대의대) 교수는 방광결핵 혹은 방광암으로 오진되어 교생한 3명의 복에 맨으로 부터의 귀환기술자가 사실은 애급주혈흡충증이었으며 이는 한국인에 있어 최초 증례가 된다 하였고 임경일 (한양대의대) 교수는 아프리카 및 동남아 특히 인도네시아로부터 귀국한 한국인에 의하여 십삼치 않게 3일열 및 열대열말라리아가 유입되고 있어 전국적인 산재가 가능성이 우려된다 하였다. 한편 순천향의대의 신동현 의사는 취급한 5세의 피부리슈마니아증 환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요르단으로부터 귀국했던 해외취업자들이었으며 해외취업자수의 증가에 따라 이와같은 질환의 유입빈도도 증가될 것이 분명하므로 열대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책 수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질환들은 국내에 유입된다 해도 생활환에 필요한 중간숙주가 없다면 번질 염려는 없다 하겠으나 고온환경에서 작업함으로써 발생 내지는 악화되는 질병에 있어 진홍상 (연세대의대) 교수가 보고한 족부백선증을 포함한 표재성 진균증은 열대지역에 보다 흔하며 개인위생상태 고온 및 습도등이 본증을 악화시키며 강진경 (연세대의대) 교수가 보고한 귀국등록환자의 질병분석결과를 외과계 80.1% 및 내과계 19.9%

로 이들 가운데는 현장발생이 대다수이나 출국전의 지병이 악화된 경우도 드물지 않아 출국전 身檢에 있어 특혜자가 있어서는 안되고 취업자 자신들이 협조적이어야 하겠으며 귀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검 및 질병의 추적조사 제도가 있어야 바람직하나 중요한 것은 일원화된 검사항목이 설정되고 이에 준하여 실시할 책임있는 기관의 설치와 법적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근태 (연세대의대) 교수의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는 열대성 질환”에서는 범세계적인 여러지역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질병이 지역별로 분류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볼 수 없는 많은 질병이 분포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경우 감염, 유입될 가능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 주제인 “해외 열대지역 장기체류 일본인에 있어서의 열대성 질환 현황과 그 관리”를 보고한 Akusawa, Minoru (일본 구르메대학) 교수는 주로 말라리아를 다루었는데 일본에 있어서의 말라리아 유입은 연간 80~100예로 추산되며 외국관광객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사망률이 전환예의 4%에 이른다는 사실은 일본에 있어서도 모종의 강력한 법적조치가 요구되거나 현실적으

로는 그렇지 못하여 다만 의사나 환자의 양심적인 보고에 의존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오사카의 만국박람회 및 오끼나와의 해양박람회 때 다수의 환예가 보고된 경험으로 보아 88년도 서울의 세계올림픽대회때 주의가 요망된다 하여 좌중을 웃게 하였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열대지역 진출에 따른 질병과 관리대책”이란 주제아래 심포지움이 시작되었는데 좌장 김명호교수의 요지설명과 연자 소개에 이어 조병문(노동부 안전관리국) 과장은 해외취업자들에 있어서의 재해발생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 바 78년도의 1.4%가 81년도 4.1%로 되었으며 질병은 업무상 12.6%이고 이의 분석, 안전관리대책, 보상관계, 사전 및 현장교육, 신체검사 사항등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문영한교수는 고온환경에서의 체온조절, 열습조건, 인체영양, 관리대책등에 관하여 광범위하고도 충실한 자료를 근거로 한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경청케 하였다. 김채원교수는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감정, 사고 및 행동등 3대요소의 화합에 의하여 건강은 물론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으며 좌장인 김명호교수의 귀환근로자의 질병분석에 관한 짧은 보고로 일단 연자들의 구연이 끝났으며 진지한 질의응답이 오고 갔다.

해외진출자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없었던 질병이 유입되고 있는 현실정은 개인은 물론 업체, 사회 및 국가에 큰 손실을 유발하게 됨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확립되고 법적근거에서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맺고 오후 5시 30분에 폐회하였다.

화려한 전시효과 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부각된 열대성 질환의 유입에 따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복지 향상을 겨냥하여 소규모로 개최한 제 13차 세미나는 예산이나 언어 및 일정에 있어 부담감이 없어 피곤함이 없었고 주제선택이 조직위원장의 강한 집념과 국민으로서의 주체성을 말해 주고 있어 여기에서도 출된 결론과 건의는 관련업체, 국민 그리고 국가의 일체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믿는다.

(필자=이화의대 기생충학  
교수·의박)

